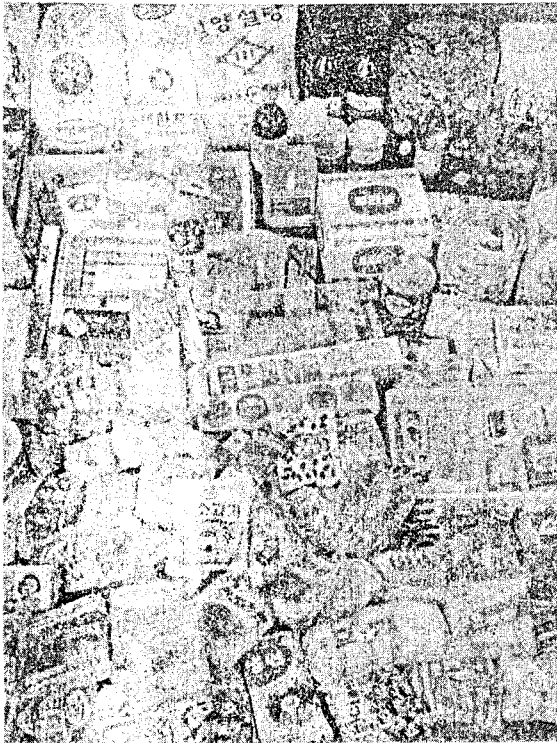


消費者가 食品메이커에 바라는 것은 ?

食品添加物, 氷菓類의 流通秩序 및 包裝問題에 對하여

本紙는 食品工業의 向上發展과 消費者保護를 目的으로 發刊을 거듭할수록 알찬 열매를 거두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는 各種 食品의 流通 및 包裝에 對한 消費者 諸位의 高見을 紙上으로 널리 紹介하고 이를 生産에 直接 反映하기 爲해 紙上 設問座談을 計劃하고 이를 掲載 합니다.



가정주부
이경혜

冷凍用 전용장갑을 사용했으면

[1] 첨가물 그 자체는 하나의 完全한食品이 이니므로 그 流通過程의 改善點에 對해서는 言及을 피하며 다만 食品의 製造過程에 있어 人體에 害로운 添加物이 되어서는 不될 것이다. 香간에 너무나 귀 아르게 떠들었던 工業用色素같은 그런 有害色素를 사용한다던가 또 定量外의 多量添加로 人體에 害를 주워서도 不될 것이다.

設問內容 (食品添加物, 氷菓類)

1. 添加物, 氷菓類의 유통과정에 관하여 개선을 요하는 점이라든가 이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2. 소매상에서의 진열, 보관, 판매등에 관하여 개선을 요하는점 또는 의견이 계시면…?
3. 포장재료와 상태 및 의장등에 대한 의견이 계시면…?

氷菓類의 製品이 流通過程에서는 原料의 處理過程에서부터 商品이 消費者의 손에 들어오기 까지 모두 위생적으로 처리되어야 하겠으며 또 운반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위생적인 처리라하면 운반하는 사람이나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상인이거나 빙과통에서 불건을 꺼낼 때만 사용하는 고무장갑같은 (물론 고무장갑 그 자체도 위생적이어야 할 것이다) 기타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깨끗하고 신선한 빙과물을 먹을수 있도록 운반, 판매해야 될것같다. 그리고 향상하는 예이지만 中間都売商制度를 하루속히 없애 버렸으면 한다.

첨가물엔 表示를 꼭 하도록

[2] 첨가물은 식품첨가물이란 表示를 꼭해야 할 것이며 포장상태가 무엇보다도 깨끗해야 할 것이다. 식품첨가물은 대부분 化學的合成品이므로 그 製造, 加工, 使用 또는 保存에도 큰 신경을 쏟아야 할 것 같다. 더욱이 지난번 保健當局의 식품첨가물의 規格基準의 改正이 있었으니 法대로 준수해 줬으면 한다.

氷菓物의 경우는 앞으로 올 여름철에, 매장군이 몇백마리니...하며 또 소비자에게 공포증을 주지 않도록 製造業者와 當局의 強力한 監督을 要望한다.

이제는 氷菓物도 여름철에만 갖는 기호품이 아니므로 大衆化되었다는 事實을 제조업자는 먼저 알아

야 할 것이며 이에 對備하여 보다 영양적인것을 생산판매하여야 할 것이다. 유통과정에서의 판매도 깨끗하고 신선한 것을 먹을 수 있도록 注文배달식 판매제도도 병행했으면 한다. 또 都心地에서는 그나마 德을 보아 냉동기에서 제조되는 것을 맛 볼수도 있고 또 소매상에서도 얼음통에 보관되었다가 파는 하드크림을 맛 볼수 있으나 地方으로 가면 가물에 콩 나듯 찾기 어려운 形편이니 이런 점도 소비자의 공동이익을 위해서는 관계 메이커에 제언하는 바이다.

소매상에서의 판매에 개선을 요하는 점이라면 얼음통을 길거리에 내놓고 팔지 말았으면 한다. 비나 와서 물이 고였을때 車만 한번 지나면 시꺼먼 흙탕물이 Box에 튀겨 視覺的으로 口味에 당기지 않는 그런 판매는 소매상인의 자질문제로 보겠으나 이의 개선책으로서는 食品메이커측에서 판매촉진을 위해서도 보다 세심한 감독이 있어야 할 것 같다. 다

[3] 包裝材料는 전문적인 知識이 없어 意見 조차도 제시치 못하나 요즘 市販되고 있는 크림 種類를 보면 스틱이 없는것이 많고 종이가 크림에 붙어(冷凍이 너무 잘 되어서인 모양이다) 잘 떨어지지 않는 경우를 흔히 보는데 이때, 이 종이를 씹지 않을수 없게 된다. 씹어도 괜찮을 包裝材인지 모르겠다. 아 물론 衛生的인 材料, 값싸고 보기 좋은 包裝資材로 소비자에게 혜택주길 바란다.



韓國婦人會 江原道支部
支部長 朴 順 用

食品添加物이 大衆化되었으면...

[1] 이제는 韓國의 食品工業도 놀랄만큼 發展하여서 食品添加物의 種類만도 255種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 主婦들도 食品衛生에 對하여 고심하고 있는 當국의 努力에 감사한 마음을 갖어야 될 것이다. 食品添加物하면은 아직 우리들 에게는 좀 익숙한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모든 음식물의 保全에 절대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主婦에게 宣傳이되어 큰 食品製造工場에서만 使用하는 것으로만 理解할 것이 아니라 主婦들이 자주 출입하는 食品商會에서도 添加物이 지니고 있는 成分의 說明書를 첨부하여 적은 量이라도 自由롭게 선택하여 家庭의 조리대 위에서도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었으면하고 바란다. 지금까지는 食品添加物製造工場에서 대메이커들만을 상대로하여 유통할 수 있도록 하기때문에 소비자들에게 알맞는 量과 포장으로 食品첨가물이 지닌 成分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고 기대를 하고 싶다.

빙과물인 아이스크림도 운반과정에서 기온의 영향을 받아 녹는다든지 또는 판매상에서 보관의 부주의로 메이커에서 제조한 것과 현격한 차이가 생기면 소비자에게 불쾌감을 갖게하는 것이다. 아이스크림같은 것은 容器를 좀더 科學的으로 만들어서 工場의 제품이 24時間동안은 變化가 생기지 않도록 研究하여 주었으면하고 바람이 이렇게 하여야만 소비자들이 메이커를 신임할수있지않을까 생각한다.

販賣員에게 教育制度를...

[2] 主婦들이 가장 많이 드나드는 食品소매 상은 소비자를 맞는 자세로부터 物品保管및 진열 그리고 商品의 안에까지 技術적이고 科學的인 관리를 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물건을 사러 소매상에가서 구

입코자 하는 物品을 요구하면 主人이 이곳저곳을 한참 뒤져서 1年가령 보관하였던것 같은 물품을 내놓을때의 불쾌감은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소비자의 지나친 욕심인지 몰라도 食品판매점의 판매원만을 일정한 기간동안 管理에 대하여 보사부 위생 담당실에서 教育을 실시하여 자격을 가진 판매원이 있는 食品商會를 구별하여 主婦들이 마음놓고 판매원에게서 구입하도록 마련하여주었으면 한다. 또한 食品의 진열도 깨끗한 진열대에 유리문을 만들어서 食品에 한하여서는 쥐나 파리같은 해로운것이 가깝게 갈수없도록 하여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간절하다.

아후터·서비스 制度가 아쉽다

[3] 食品의 포장은 소비자나 메이커가 다같이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포장이라든지 내용물보다비용을 더 들여서 포장을 하였다면 얼마나우스꽝스러운 이야기겠는가? 포장이 화려함으로 인하여 생산가격을 높이는 것도 소비자에게는 큰 부담이되며 더욱이 배제 하여야 될 것은 포장의 선전과는 달리 내용물이 조잡할때 응당 고발을하여 메이커를 응징하고 그 食品은 구입한 장소에서 요구에 따라 交換하여 줄수 있는제도를 마련하여야 될것이라고 본다.

얼마전에 이런일이 있었다. 선물용으로 포장된 국대메이커 제품의 과자상자를들여보니 내용물의 빈약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맨 밑에는 아주 가격이 싼 과자를 반 이상채우고 보이는 곳에만 약간의 치장으로 과자를 넣어 놓은 것을보고 울컥치미는 불쾌감을 막을수가 없었다. 이것은 소비자를 기만하는것이지 食品을 판매하기 위한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할때 정말 울분같은 것을 느꼈다.

메이커에서는 양심을 지켜 이런 파렴치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은 삼가하여야 될 것으로 보며 포장할때 운반이나 내용물이 變質되지 않는 方向을 연구하고 지나치게 선전효과만을 노리는 일이 절대로없어야 할 것이다.



大韓体育會選手村長
李 相 麟

中間都売商制의 탈피를

[1] 食品添加物은 大部分이 化學的合成品으로 알고 있다. 一部天然物質(酵母같은)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研究의 담당기술자들의 良心에서 法을 준수하고 規格基準에 適合한 製造, 加工, 使用되어야 할 것이다. 試驗結果 의심스러운점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제차 연구보완하여 사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數百種에 達하는 添加物의 種類를 소비자는 그 사용에 對해 전혀 모르며 짐가불 그 자체는 食品이 아니므로 이 紙面에서는 다만 添加物 그 自体의 流通에 “表示”와 “許詞番号” 또 “製造業所의 処稱”이 明確했으면 한다. 그리고 식품제조업자는 이를 添加物規格基準에 맞도록 사용기를 바란다. 氷菓物의 流通에 關해서는 비교적 他品目에 比해 衛生的으로 處理되는 것 같다. 氷菓自体가 글字 그대로 일음이므로 녹지 않기 爲해 소매상점까지도 氷菓통을 利用해서 市販되고 있으니 極多幸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그것이 大都市의 地域的인 分布販賣인 것 같다. 물론 經營의 資本問題가 뒤따라야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차차 해결되리라 믿고 生産者로부터 消費者손에 바로 넘겨지는 中間都売商制가 없었으면 한다.

흔히 制度上으로는 備置場制度이며 代理店制度를 採하고 있지만 實販賣經營은 좀 동떨어지지 않나 의심도 생긴다. 물론 大메이커에서는 良心的인 企

業으로 消費者들에게 利益을 줄 直營販賣制度를 採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소프트·크림의 生産을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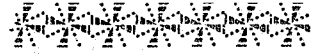
[2] 氷菓類의 保管, 販賣는 무엇보다도 神經을 써야 할 것 같다. 이제는 小売商에서 氷菓통을 많이 볼 수 있어 매우 반가운 일이라 하겠으나 아직도 판로에서의 점조적이 미흡한 것 같다.

優秀食品메이커에서는 이 점을 감안하여 깨끗하고 시원한 크림種類를 맛보고 싶다. 어떤 食品種類보다 氷菓는 冷凍狀態를 유지해야 하므로 지금의 우리 실정으로는 소프트·아이스크림을 맛보기 힘들다. 앞으로는 하드生産型에서 소프트를 生産 販賣하도록 노력했으면 한다.

包裝資材의 開發이 아쉽다

[3] 포장재료와 의장등에 대해서는 물론, 實務者가 신경을 더 많이 쓰고 있을 줄로 아나 소비자 입장에서 包裝材의 經費節減으로 코스트·다운이 되어 주기 바란다. 현재의 氷菓類 包裝狀態에는 外國에 比해도 과히 손색이 없다고 들었다. 보다 좋은 包裝資材의 開發에 힘쓰기를 부탁할 뿐이다.





가정주부 입 미 숙

從業員의 衛生도 철저히

[1] 첨가물은 色素까지 포함된 말이겠으나, 그것이 어디 까지나 식품위생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다 위생적이고 식욕을 돋구는 깨끗한 첨가물이 되었으면한다. 이 分野는 전문분야에 속하는 것 같으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만 법에 위반되지 않는 행위를 생산업자가 꼭 지켜 줬으면한다.

그리고 氷菓類의 유통과정에서는 區別備置場制度나 슈퍼마켓制를 利用했으면 하고 商品의 流通過程에서는 앞으로 여름철이 올테고해서 몇마디 제언하고자 한다.

우선 깨끗하고 영양적인 것을 먹고 싶은 것이 소비자에 욕심일 것 같다.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파는 아이스크림도 허기가 진 사람모양 많이 사먹기도 했으나, 이제는 그 때도 우리사회에서는 옛날 애기로 돌릴때가 온 것 같다. 시설의 개선으로 자동식 포장까지 되어 工業에 從事하는 종업원까지도 철저한 위생관념으로 제조생산에 신경을 써서 우선 소매상에까지 병동차로 운반되었으면 한다.

냉장고의 개선책은 없는지

[2] 氷菓類의 판매는 물론 제조과정 보다는 더욱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다. 대메이커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그래도 아이·박스를 이용하여 小売商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도 아쉬운감이 많다. 소매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인데 시꺼먼 손으로 얼음냉장고에 있는 크림을 꺼내 줄때 무척 입맛이 개

운치 않다. 물론 크림 그 자체에 포장이 되어있으나 소매상인의 교양부족이 아닌가 한다. 이런 경우 氷菓類를 제조하는 메이커에서는 그 對策으로 부톤을 누르면 하나씩 나오는 냉장고의 개선책은 없는지...? 소비자의 욕심일린지는 모르겠으나 냉장고에 손을 넣을때, 특별히 끼는 장갑이라도 써비스했으면 한다.

包裝材 선택으로 原價節減하길

[3] 포장재로에 對해서는 이 역시 전문적인 기술분야이므로 구체적인 提言은 하지 못하나 포장비의 상승율로 소비자가 그 만큼 부담해서는 아니 될 것 같다.

위생적으로 有害하지만 많은 포장資材라면 그냥 무난하지 않을까 한다. 포장의 디자인을 보면 요란한 4原色 印刷로 비용을 포장에 많이 사용하는것 같다. 물론 화려하고 산뜻한 포장이 좋겠지만 그로 인하여 생산원가가 절상된다면 그런 비용을 고려해 볼 필요도 있는것이 아니겠는가?

